

2024년 8월 4일(주일) 제1694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 설문조사 결과 분석 설명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

지난 6월 9일(주일)-16일(주일) 2주간 실시한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교인설문조사' 결과 발표회가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당초 계획은 결과를 요약해서 순례자 특집 기사로 발표하려 했으나, 단순 데이터만으로는

문항별 응답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조사 수행기관(목회데이터연구소)의 연구책임자께서 전체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신청 마감 : 8월 9일(금)까지
사무국으로

서울교회 장학회(회장:오윤걸 장로)는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순례, 일반, 광림, 송암, 브리스길라 장학금으로 분류되며, 지원 대상은 순례·일반 장학금은 교회 내 대학생, 광림장학금은 호산나대학생, 송암장학금은 교역자·선교사 및 직원의 자녀, 브리스길라장학금은 신학생이 대상입니다. 광림장학생과 브리스길라장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업성적이 우수하고(평균 B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이며, 청년부에 출석하고 교회 봉사에 모범적인 대학생들을 선발 조건으로 합니다. 또한, 청년부 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청년부 및 봉사부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또는 신앙 간증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8월 9일(금)까지 교회 사무국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학금 수여식은 8월 25일(주일) 저녁 찬양예배 시 있을 예정이며, 선발된 학생은 전원 참석하여야 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지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기도가 변제라!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지역주민을 위한 서울교회 건강강좌

Health Lectures for Seoul Church and Local Residents

일시

7월 14일 ~ 8월 11일
(매주일) 오후 12시 20분

장소

서울교회 1층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

주최:서울교회 의료선교부

이번 주 건강강좌 주제 및 강사

· 주제:하지정맥류의 진단과 치료



범민선 성도
(심장혈관흉부
외과 전문의)

현) 서울88의원 원장
전남대학교병원 심장심장흉부외과 전임의
목포중앙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성기롤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
대한정맥학회 정회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ECMO 정회원
대한투석혈관학회 정회원
대한혈관외과학회 회원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당당하고 위엄있게

단 6:10-18



손달익 위임목사

삶의 위기는 젊은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 삶을 마감할 때까지 위기는 여전히 찾아오고 평생 지켜온 신앙의 가치들이 도전받는 시험 앞에 서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것은 BC 605년경으로 그는 이곳 포로지에서 6,7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80세가 넘었던 때였습니다. 그는 바벨론에서 정치인으로, 시대의 지성인으로, 여호와 신앙인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살아오는 동안 무척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

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된 노령의 지도자에게 다시 한번 정치적 회오리 바람이 몰아쳐 그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을 지켜온 신앙인의 삶을 강제 종료 당하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중동 일대의 새 주인으로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이 광활한 지역의 통치를 위해 과거 바벨론 정부 하에서 일했던 지도자들을 중용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용되었습니다. 이 일을 주관하던 페르시아의 분봉왕인 다리오는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그 중의 으뜸 총리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막기 위해 긴급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그 법은 '왕 이외의 누구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미동도 없이 전과 같이 기도했고 결국은 사자 굴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노인 다니엘의 영적 위엄을 보게 됩니다.

1. 모함과 음모 앞에서

사건은 페르시아가 새로운 점령지에서 통치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각 식민지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매우 유화적 통치를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철권통치를 중시했던 바벨론의 잔혹한 통치와는 매우 결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각 도마다 수령을 임명하여 다스리게 했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집단지도체제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판단에 다니엘이 너무나 출중했고 오랜 행정 경험으로 매우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는가 하면 유대인 출신이어서 바벨론 출신의 관료들보다는 훨씬 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 으뜸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3절) 그러나 이 계획은 강한 반발에 직면했고, 즉각적으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음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서 도덕적, 정치적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자 새로운 법률제정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기도 금지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을 설득하기를 '앞으로 삼십일 동안 왕 이외의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사람은 누구나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고 했습니다.(7절)

이 법의 초점은 다니엘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관료들은 한 사람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거짓, 교만, 허영, 불의함 등 모든 악한 요소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국가경영이라는 숭고한 목적보다 자기들의 권력 장악에 몰두합니다. 신앙의 정도를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진정한 세상의 공익을 위한 봉사자로 사는 길에는 언제나 이런 종류의 모함과 함정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훼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이런 올가미와 위협과 함법을 가장한 사악한 일들을 만들고 행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악법 앞에서 경건한 신앙인의 전통을 따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문서로 작성된 내용도, 그에게 주어진 법률적 의무도 아니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이것이 노인 다니엘의 위엄입니다.

2. 다니엘의 투쟁

다니엘은 기도가 금지된 법령의 선포와 그 형벌이 사자 굴에 던져지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극단적 분리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젊은 세대들이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전통이 엄격하게 보존되고 지켜지기를 희망했고 이를 위해 지도자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신앙적 엄격성과 문화적 개방성이라는 두 측면을 모두 중시했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근본을 위협하는 조치들에 대하여 조용하지만 단호한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자랑하지도 않고 자기 입장을 발표하지도 않고 조용히 자기 신앙의 길을 갔습니다. 정치적 음모가 난무하는 역사의 한 가운데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고 외치는 그의 무언의 함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가 좀 특이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금지시키는 것은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박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의 모든 희망을 공개하면서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며, 당황하지 않고 초

정치적 음모가 난무하는 역사의 한 가운데서
조용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고
외치는 다니엘의 무언의 함성을 듣게 됩니다

연하며, 순교를 자초하진 않으나 주어진 재앙 앞에 타협하지 않는 대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권력이나 죽음의 공포나 미래에 대한 걱정 등 그 무엇으로부터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한 모습이기도 하고 태산 같은 위엄이 보이는 묵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다가온 시련을 대하는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3. 하나님의 구원

다니엘은 마침내 사자 굴에 던져지는 형에 처해졌습니다. 후에 왕이 법령의 잘못을 깨닫고 다니엘을 구조하기 위해 마음과 힘을 다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을 지새운 왕이 새벽에 사자 굴을 찾아가 '다니엘이여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그대를 구원하셨는가?'라며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자 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극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의 장엄함을 지키는 자들을 살피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의 교훈은 성도의 궁극적 승리로 해석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핍박 받고 무죄한 사람임에도 사형에 처해지고 무덤 같은 사자 굴에 던져지지만 결국은 승리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이런 저런 시련과 박해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하시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후 4:17-18).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얻기 위해 오직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생명의 위기와 공포 앞에서 그의 갈 길을 갔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모난 돌같은 저를 품어주신 주님



조민주 성도
(8교구)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성화에 못이겨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 40년이 넘게 흐른 것 같습니다.

말로는 항상 종교는 기독교라고 했지만 결코 행실은 기독교인처럼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이어 온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번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전도사님의 권유와 권사님들의

귀여우신 협박에 못이겨 새가족부에 등록하게 되었고 또 공교롭게 흥해작전 기간이라 흥해작전에 참석하게 되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새가족부 교육 때 박미라 전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며 선택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 행동들도 알게 되어 예전과 같은 헛

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모난 돌 같은 저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살펴 주신 박미라 전도사님과 여러 권사님들께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회의 참된 신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준비하며

시골 교회에서 말씀으로 3일 살기



장윤기 안수집사
(청년부 부장)

할렐루야!
서울교회 성도여러분, 청년부 여름수련회에 초대합니다.

이번 수련회는 8월 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2박 3일간 가평 성산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디지털 미디어 없이 옥수수와 포도 농장 그리고 가평의 맑은 물에 둘러 쌓여 있는 시골 교회에서 삼시세끼 밥을 해 먹으며 오로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며 친교하는 시간을 갖습

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소에도 청년부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시골 교회 3일 살기 미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께 권면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후원은 이요한 청년 회장, 현종필 목사, 장윤기 안수집사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는



무슬림 땅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우리 주님께서 서울교회와 손달의 위임목사님, 선교부와 선교부를 섬기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OO에서 다음과 같이 선교편지를 보내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보고

1. 여름수련회

6월 17일(월)부터 19일(수)까지 2박 3일 동안 OO어린이들을 위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교회에서 숙식하며 생명의 삶이라는 주제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구절을 암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영혼들에게는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낮에는 미니 올림픽을 통하여 같이 교제하였고 가까운 곳에 있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즐기며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월 25일(화)-27일(목)까지는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련회에는 고려인들과 러시아인, 터키족 등 다양한 민족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였습니다.

이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아동부들과 청소년들이 모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장년부 수련회

7월 16일(화)-17일(수) 1박 2일 장년 수련회를 찰달라에 있는 수련회 장소에서 진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년부 수련회도 주제는 동일하게 생명의 삶입니다.

강사는 OO인 아미나 자매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거듭나고 성장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고아 사역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고아 사역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외국인 선교사들이 고아들을 위임받아서 키울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고아를 입양하여 키우는 귀한 현지인 부부를 만났습니다.

OO인 아만 부부(41세, 부인은 파티아나, 러시아인)가 개인적으로 고아를 입양하여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본인들이 낳은 두 명의 아이들과 한 명(아므르, 러시아족)의 고아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입양한 또 한 명은 이미 장성하여 결혼하였고 다른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부부 가족은 아직 이 도시에 집이 없어

서 월세를 살고 있으며 주택구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이 부부가 우리와 같이 협력하여 향후 고아들을 더 입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키울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 이 중앙아시아가 OOO 무슬림 땅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 전도의 돌파가 일어나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도록
2. 타라즈 미르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들이 강한 주님의 제자들과 군대들로 세워지도록
3. 수련회에 참석하여 말씀을 들은 청소년

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4. 고아들을 입양하여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고아원 사역이 더 확장되도록

5. 고아 사역을 위한 주택 구입을 위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이은준·강혜정 선교사 드림



16강 : 사도신경-성자 하나님(1)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위키피디아(Wikipedia)에서 ‘예수’를 검색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히브리어: ישו 예수, 히브리어: ישוע 예슈아, 고대 그리스어: Ἰησοῦς 예수스, 기원전 4년경-기원후 33년경) 나사렛 예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서기 1세기 갈릴래아의 나자렛 출신 유대인 설교자이며 종교 지도자로서 기독교 창시자이며 신앙의 대상이다. 기독교인 대부분은 예수를 성육신한 성자인 동시에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는다. wikipedia, “예수,” <https://ko.wikipedia.org/wiki/예수>, [2024. 4. 18. 접속].

비교적 객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교회 밖의 문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인 동시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는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덮어놓고 믿었던 경험이 있다면,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지,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실천하신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기 힘든 종류의 사랑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건 가운데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성육신 사건을 “사랑의 사건인 동시에 진리를 전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

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를 배우는 사람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된 위치까지 끌어올려서 진리를 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시고 종의 형상으로 나타나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동시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곧 사랑의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남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모습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위에서 아래로 자리를 옮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우리가 빛진 자리에 있다는 것, 즉 죄의식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29문 :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답: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분 외에는 어디에서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성자에 대한 고백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루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일

을 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내용을 짧게 표현하면 “인격과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원사역인데,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대신할 수 있다면, 대체가능하다면 중요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각인시키신 진리 가운데 하나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십자가 사건의 전제입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피’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30문 :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답: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의 하나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각 지역의 토착종교와 그리

스도교가 혼합되기도 하고 복음이 상황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혼합(synchronized)되는 것과 상황화(indigenized)되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믿었던 신들을 버리지 않고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꾸어 부른다거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또는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은 혼합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로, 엄밀히 말하면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신들을 구원해 낸 여호와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상황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종교행위에 새로운 의미부여를 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우리 조상들이 쌀을 모아두던 단지에 신적인 의미를 부여했던 신주단지를 그리스도교 전통 안으로 가져와서 성미로 사용했던 것과 같습니다.

31문 :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음역한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번역어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기로 약속한 사람에 대한 히브리 칭호입니다. ‘기름 부음’은 왕, 제사장, 예언자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왕이자 제사장으로 그리고 예언자로 인

정하고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왕으로서 죄와 죽음과 같은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며, 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을 선언하며,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됩니다. 편의상 역사적 예수와 신앙의 그리스도를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인성과 신성을 간직하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동정

- 군입대:9교구
김도연 안수집사·이선주 집사 아들 김민우
(이남성 은퇴안수집사 최영란 은퇴권사 외손자)
6월 11일(화) 입대



식사 제공



- 3교구 김선평 성도·안미애 성도
(김선평 성도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상) 처음 시작한 도심리(숲속)교회
(중, 하) 2019년 11월 건축하여 입당한 도심리(땅속)교회 사진입니다.
서울교회의 후원과 관심, 그리고 에스더전도회의 중보기도로 도심리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옥수수 제공

- 오늘 점심 식사 시 사라(회장:김인숙 권사), 리브가(회장:남태영 권사), 한나(회장:최복희 권사), 에스더전도회(회장:박민숙 권사)에서 짬옥수수를 제공합니다.
이번 옥수수는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농촌 교회 중 에스더전도회가 기도 후원하는 강원도 홍천 소재 도심리교회에서 구매한 것입니다.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 일 자 | 요일 | 1년 1독 |
|-------|----|------------|
| 8월5일 | 월 | 사 44-47 |
| 8월6일 | 화 | 사 48-53 |
| 8월7일 | 수 | 사 54-57 |
| 8월8일 | 목 | 사 58-61 |
| 8월9일 | 금 | 사 62-66 |
| 8월10일 | 토 | 렘 1-4 |
| 8월11일 | 주일 | 렘 5:1-7:29 |

이름:

| 맥체인 성경통독 | | | |
|----------|-----|--------|--------|
| 삿19 | 행23 | 렘33 | 시3,4 |
| 삿20 | 행24 | 렘34 | 시5,6 |
| 삿21 | 행25 | 렘35 | 시7,8 |
| 룻1 | 행26 | 렘36,37 | 시9 |
| 룻2 | 행27 | 렘38 | 시10 |
| 룻3,4 | 행28 | 렘39 | 시11,12 |
| 삼상1 | 롬1 | 렘40 | 시13,14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8월 절정에 이른 무더위에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 천국시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시며, 제4대 담임목사님 청빙 절차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인도하소서.
-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십자가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 되게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훈
- ◇ 협동목사
양정호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장소 |
|-------|-----------|-------------|
| 주일 예배 | 1부 예배 | 오전 9시 |
| | 2부 예배 | 오전 11시 |
| | 3부 예배 | 오후 2시 |
| | 찬양 예배 | 오후 4시 30분 |
| 수요 예배 | 1부 예배 | 오전 11시 |
| | 2부 예배 | 오후 7시 |
| 새벽기도회 | 오전 5시 30분 | 웨스트minster홀 |
| 금요기도회 | 오후 8시 | 웨스트minster홀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간 | 장소 |
|-------|----------------------|------|
| 영아부 |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403호 |
| 유아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6호 |
| 유치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2호 |
| 유년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701호 |
| 초등부 | 오전 11시 - 12시 10분 | 601호 |
| 중등부 | 오전 9시 - 10시 30분 | 501호 |
| 고등부 | 오전 9시 - 10시 20분 | 101호 |
| 청년부 | 오후 3시 30분 - 5시 | 601호 |
| 신혼가정부 | 오후 12시 30분 - 2시 | 606호 |
| 사랑부 |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 603호 |
| 소망부 | 오전 10시 10분 - 11시 | 102호 |
| 신앙강좌부 |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 602호 |
| 새가족부 |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 202호 |
| 세례교육부 |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 609호 |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

